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막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할 것을 청하고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으며 모든 종류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해주세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 가시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 설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기쁜 소식” 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요.

이 기쁨과 구원의 선포는 8개의 참 행복 중 첫 번째 행복에 요약되어 있으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확인해 주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가 지닌 재물과 사물들, 피조물들, 우리 자신, 에서 애착을 끊는 것.....과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는 종종 건강에 대한 걱정, 우리 친척들에 대한 두려움, 특정 직업에 대한 우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유해요’ ...

centro.rpu@focolare.org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우리의 영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과 자신 안에  
간혀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자신을 열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 마음이 가난한  
사람 " 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하느님께  
자신의 걱정을 내어  
던지며 그분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경험해요.**

**언제 «마음이 가난»한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도록 놓아둘 때  
우리는 "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 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미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 주도록 해요.**

**이 순결한 마음과 이 마음의  
가난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얻을 것임을  
보증하세요.**

**행복하여라, "...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03  
**Parola di Vita**  
movimento dei  
focolari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nità



천국은 재산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획득할 수도 없어요.  
**그 것은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처럼 될  
것을** 청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사랑의 무에  
이끌려서** 가득한 친교를 방해 할  
장애물도 없을 것이므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실 수 있을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니”,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녔기 때문으로, **자기  
자신은 가난하고 하느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주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라는 복음말씀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주면 **하늘 나라가 주어질  
것이에요.**